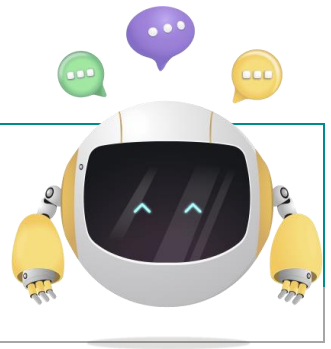




메타, AI 인프라와 모델 동시 확장

Tech&Stock Weekly | 2026.07.10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메타(META.US): AI 인프라와 모델 동시 확장

- 7월 9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의 AI 인프라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확인. 검토 이유는 자체 AI 제품 운영·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 환경이지만, 일부 인프라는 외부 임대 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 외부에서 제시하는 연산 사용 대가가 워낙 높아 내부 활용 대신 임대 계약을 택하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는 입장. 다만 메타가 과잉 투자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음. AI 업계에서 연산 능력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으며, 메타도 보유 연산 자원을 전부 사용 중이라고 설명함. 잉여 컴퓨팅 처분이 아니라, 외부 수요의 가치가 일부 내부 용도를 상회할 경우 인프라를 수익화하는 추가 수단이라고 밝힘

스페이스X(SPCX.US): 상장 후 첫 모델 Grok 4.5 공개

- 스페이스X AI가 신형 모델 Grok 4.5를 공개함. 지난달 상장 이후 첫 모델 출시로, 베타 테스트 고객 반응을 근거로 일반 공개는 목요일부터 진행 예정. 포지셔닝은 범용 실무형. 코딩·앱 개발, 사무·행정 업무, 리서치, 글쓰기 등 업계가 자동화를 추진해 온 일상적 지식노동 전반을 겨냥한 모델. 타 프론티어 모델 대비 토큰 효율이 2배 높다는 주장. 실사용에서 입증될 경우 토큰 비용 부담이 커진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음
-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을 앤스로픽의 고성능 라인업에 빔대 Opus급으로 규정. 내부 평가상 Opus 4.7과 대체로 비슷한 성능이면서 훨씬 빠르며, 성능·속도·가격의 조합이 경쟁력이라는 설명. 공개된 벤치마크상으로는 경쟁 상위 모델들과 견줄 만하나 최고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위치
- 가격은 공격적. 입력 토큰 100만 개당 2달러, 출력 6달러로, Opus 4.7의 입력 5달러·출력 25달러 대비 큰 폭으로 낮음. 오픈AI의 최상위 모델 Sol(입력 5달러·출력 30달러)과 보급형 Luna(입력 1달러·출력 6달러) 사이에서 보급형 가격에 상위급 성능을 표방. 전략적으로는 프런티어 1위 경쟁 대신 가성비 실무 시장을 파고드는 접근

앤스로픽(비상장): 알리바바, 앤스로픽 AI 전면 사용 금지

- 알리바바가 7월 10일부로 전 직원의 업무용 앤스로픽 AI 도구 사용을 금지함. Claude Code를 보안 취약점이 있는 고위험 소프트웨어 목록에 등재하고, 대체재로 자체 코딩 플랫폼 Qoder 사용을 권고한 상태. Sonnet, Opus, Fable 등 앤스로픽 모델 전 계열의 삭제 지시도 병행됨
- 직접적 계기는 백도어 의혹. 6월 30일 한 개발자가 Claude Code를 역설계한 결과, 4월 2일 배포 버전부터 릴리스 노트 언급 없이 은닉된 탐지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분석을 공개. 해당 코드는 서버로 전송되는 프롬프트에 식별 마커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연계 사용자를 가려내는 구조라고 주장
- 앤스로픽 측은 해당 기능이 무허가 리셀러의 계정 남용과 모델 증류를 막기 위해 3월에 시작한 실험이었으며, 이후 더 강한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제거할 예정이었다고 해명. 개인정보 정책상 수집 범위 내라는 입장이나,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게 설계된 은닉 방식 자체가 통상적 고지의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임
-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달 시작된 양사 충돌이 있음. 앤스로픽은 알리바바의 Qwen 연구소와 연계된 조직이 약 25,000개의 가짜 계정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델 증류 공격을 수행했다고 미 상원의원 2인에게 서한으로 알린 상태. 서한 이후 앤스로픽은 다수 중국 사용자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차단하고, 제3국 경유 우회 접근 경로 차단에도 나선 바 있음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중국, 자국 AI 기업에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압박

-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AI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0 칩의 제한적 구매를 허용할 방침.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등이 최근 구매 허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상태. 승인 방식은 총량 배분이 아닌 개별 심사 구조. 각 기업이 필요 수량과 사용 목적을 소명해야 허가가 나오는 방식. 허용 규모는 아직 확정 전이며 총 20만 개 미만이 될 가능성. 이는 해당 기업들이 요청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규제 병목은 그간 미국이 아닌 중국 쪽에 있었음. 미국 정부는 이미 H200의 대중 판매를 허용하고 약 10개 중국 기업에 구매 라이선스를 부여했으나, 중국 당국이 자국 반도체 업체 육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해 왔음
-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던 중국 데이터센터 매출의 부분 회복 경로가 열리는 이벤트. 다만 20만 개 미만이라는 상한과 건별 심사 구조를 감안하면 초기 매출 기여는 제한적일 전망. 보도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약 4% 상승

애플(AAPL.US):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 규모 칩 공급 계약

- 애플이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다년(~2031년) 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 중 150억 개 이상의 미국산 칩 생산이 예상되며,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소재 브로드컴 공장의 15억 달러 규모 증설·현대화 투자가 포함됨. 신규 캐파 가동 시점은 미공개 상태
- 생산 품목은 FBAR 필터를 포함한 고주파(RF) 부품과 셀룰러·Wi-Fi·블루투스 연결용 무선 부품. 계약은 2031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브로드컴이 월요일 SEC 공시를 통해 커스텀 ASIC 실리콘 개발·공급 관련 장기 계약 체결을 먼저 공개한 뒤 애플이 수요일 세부 내용을 발표
- 이번 계약은 애플이 2025년 발표한 4년간 6,000억 달러 미국 투자 계획 가운데 가장 큰 단일 항목.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만든 American Manufacturing Program(AMP)에서도 최대 규모에 해당
- 다만, 6,000억 달러 투자 계획 자체가 기존 지출을 다시 분류한 성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300억 달러가 순수하게 새로 늘어난 투자인지는 이후 확인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액셀·워드 AI에 자체 모델 투입

- 마이크로소프트가 액셀과 워드에서 사용자 요청의 일정 비율을 자체 개발 MAI 모델로 처리하기 시작함. 지난달 연례 개발자 행사 Build에서 코딩 에이전트와 이미지 생성 모델을 포함한 신규 MAI 모델 7종을 발표한 상태. 오픈AI와 앤스토크 모델 사용을 줄여 AI 운영 비용을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Office 365의 상당 부분이 오픈AI와 앤스토크 모델로 구동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왔던 만큼, 이번 전환은 눈에 띄는 방향 선회. 다만 외부 모델 의존을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며 병행 사용 구조는 유지됨
- 배경에는 업계 전반의 AI 비용 절감 흐름이 있음. 연초 토큰 사용을 극대화하던 분위기가 최근 수개월 사이 반전되어, 아마존, 우버, 메타, 액센처 등이 잇달아 직원들의 AI 사용 비용을 통제하는 조치에 나선 상황.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기업은 더 저렴한 중국계 모델을 에이전트 용도로 검토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남
- 오픈AI, 앤스토크 같은 모델 공급사 입장에서는 최대 유통 채널이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이자 경쟁자로 이동하는 구도. 특히 오픈AI와의 관계에서 상호 의존도가 추가로 약화되는 신호로 해석됨.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추론 수요 자체가 꺾인다고보다 워크로드별로 비싼 프린터 모델과 저렴한 자체·소형 모델을 나눠 쓰는 믹스 변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해석됨. 나아가 대형 앱 사업자의 자체 모델 내재화가 확산될 경우 모델 API 매출의 단가 하락 압력이 구조화될 가능성 존재

아마존(AMZN.US): 250억 달러 회사채 발행

- 아마존이 최소 25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회사채 발행에 나섬. 만기 3년에서 40년까지 8개 트랜치로 구성된 선순위 무담보 채권이며, 고정금리 중심에 일부 변동금리 포함. 조달 자금 용도는 일반 기업 목적으로, 향후 설비투자나 만기 도래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음. 아마존측은 주간사단에 올해 추가 차입은 없을 것이라고 전달
- 주목할 부분은 수요 강도의 변화. 주문이 화요일 한때 620억 달러까지 몰렸으나 주간사들이 최종 스프레드를 축소하자 약 410억 달러로 줄어, 발행 규모 대비 1.6배 수준에서 마감. 지난 3월 370억 달러 규모 11개 트랜치 발행이 과열에 가까운 초과 수요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열기가 한풀 꺾인 양상

메타(META.US): AI 인프라와 모델 동시 확장

- 7월 9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의 AI 인프라 일부를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확인. 검토 이유는 자체 AI 제품 운영·개발에 필요한 연산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 환경이지만, 일부 인프라는 외부 임대 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 외부에서 제시하는 연산 사용 대가가 워낙 높아 내부 활용 대신 임대 계약을 택하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는 입장. 다만 메타가 과잉 투자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음. AI 업계에서 연산 능력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으며, 메타도 보유 연산 자원을 전부 사용 중이라고 설명함. 잉여 컴퓨팅 처분이 아니라, 외부 수요의 가치가 일부 내부 용도를 상회할 경우 인프라를 수익화하는 추가 수단이라고 주장

- 7월 8일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스터전 카운티에 자국 외 최대 규모이자 캐나다 첫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 1기가와트급 시설로 투자 규모는 130억 캐나다달러(약 91억 미국달러) 이상, 130억 달러는 건물·설비 기준으로, 칩과 네트워킹 장비까지 포함하면 누적 관련 투자가 75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추정도 존재. 건설 기간은 2~3년 예상되며 메타의 33번째 데이터센터가 될 예정. 앨버타 전력망이 복수의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감당할 수 없어 주 정부가 자체 발전원 확보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메타는 지난주 발표된 46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Greenlight Electricity Center의 전력 구매 고객으로 확인됨. 해당 발전소 가동 목표는 2030년 하반기
- 인프라 확장과 맞물려 모델 쪽에서도 대형 발표가 이어짐. 메타가 에이전트형 코딩에 특화된 멀티모달 모델 Muse Spark 1.1을 공개함. 다단계 추론, 복잡한 프로세스 처리, 디지털 워크플로우 관리, 기업 시스템 내 신규 기능 배포까지 수행 가능한 모델로, 4월 첫 공개된 Spark의 후속 버전. 핵심 경쟁 변수는 가격. 과금 체계는 입력 토큰 100만 개당 1.25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4.25달러로, 앤스로픽 Claude Haiku 4.5와 오픈AI GPT-5.6 Luna 대비 소폭 높지만 유사한 수준. 프론티어급 에이전트 모델을 경량 모델 가격대에 배치한 구도로, 후발주자로서 가격을 침투 무기로 삼는 전략으로 해석. 타깃 시장은 기업용 자동화. 대규모 에이전트 워크로드 처리, 버그 수정, 대형 코드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핵심 소구점으로, 기업들이 AI 업체에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자동화 영역. 회사 측은 외부 앱·서비스 전반의 계획 수립과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개인 에이전트 작업에서 탁월한 성능을 낸다고 강조
- 종합하면 시장의 우려와 달리 메타는 인프라를 토대로 프론티어 모델, 수익화를 아우르는 풀스택 확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컴퓨팅은 남아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좋기에 하는 것

스페이스X(SPCX.US): 상장 후 첫 모델 Grok 4.5 공개

- 스페이스X AI가 신형 모델 Grok 4.5를 공개함. 지난달 상장 이후 첫 모델 출시로, 베타 테스트 고객 반응을 근거로 일반 공개는 목요일부터 진행 예정. 포지셔닝은 범용 실무형. 코딩·앱 개발, 사무행정 업무, 리서치, 글쓰기 등 업계가 자동화를 추진해 온 일상적 지식노동 전반을 겨냥한 모델. 타 프론티어 모델 대비 토큰 효율이 2배 높다는 주장. 실사용에서 입증될 경우 토큰 비용 부담이 커진 최근 시장 분위기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음
-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을 앤스로픽의 고성능 라인업에 빗대 Opus급으로 규정. 내부 평가상 Opus 4.7과 대체로 비슷한 성능이면서 훨씬 빠르며, 성능·속도·가격의 조합이 경쟁력이라는 설명. 공개된 벤치마크상으로는 경쟁 상위 모델들과 견줄 만하나 최고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위치
- 가격은 공격적. 입력 토큰 100만 개당 2달러, 출력 6달러로, Opus 4.7의 입력 5달러·출력 25달러 대비 큰 폭으로 낮음. 오픈AI의 최상위 모델 Sol(입력 5달러·출력 30달러)과 보급형 Luna(입력 1달러·출력 6달러) 사이에서 보급형 가격에 상위급 성능을 표방. 전략적으로는 프론티어 1위 경쟁 대신 가성비 실무 시장을 파고드는 접근

앤스로픽(비상장): 알리바바, 앤스로픽 AI 전면 사용 금지

- 알리바바가 7월 10일부로 전 직원의 업무용 앤스로픽 AI 도구 사용을 금지함. Claude Code를 보안 취약점이 있는 고위험 소프트웨어 목록에 등재하고, 대체재로 자체 코딩 플랫폼 Qoder 사용을 권고한 상태. Sonnet, Opus, Fable 등 앤스로픽 모델 전 계열의 삭제 지시도 병행됨
- 직접적 계기는 백도어 의혹. 6월 30일 한 개발자가 Claude Code를 역설계한 결과, 4월 2일 배포 버전부터 릴리스 노트 언급 없이 은닉된 탐지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분석을 공개. 해당 코드는 서버로 전송되는 프롬프트에 식별 마커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연계 사용자를 가려내는 구조라고 주장
- 앤스로픽 측은 해당 기능이 무어가 리셀러의 계정 남용과 모델 종류를 막기 위해 3월에 시작한 실험이었으며, 이후 더 강한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제거할 예정이었다고 해명. 개인정보 정책상 수집 범위 내라는 입장이나,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게 설계된 은닉 방식 자체가 통상적 고지의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임
-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달 시작된 양사 충돌이 있음. 앤스로픽은 알리바바의 Qwen 연구소와 연계된 조직이 약 25,000개의 가짜 계정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델 종류 공격을 수행했다고 미 상원의원 2인에게 서한으로 알린 상태. 서한 이후 앤스로픽은 다수 중국 사용자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차단하고, 제3국 경우 우회 접근 경로 차단에도 나선 바 있음

오픈AI(비상장): GPT-5.6 전면 출시 승인 확보

- 미국 상무부가 오픈AI의 GPT-5.6 광범위 출시를 허용한 것으로 파악됨. 추가 테스트와 정부 당국자 면담을 거친 결과이며, 일반 공개는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상되는 상황
- GPT-5.6은 3개 모델 패밀리 구성. 플래그십 Sol, 중간 가격대 Terra, 최고 속도·최저 비용의 Luna로 나뉘며, 수 주 내 전면 공개 방침. 시스템 카드상 3개 모델 모두 사이버보안과 생물·화학 리스크에서 고역량 등급으로 분류된 점이 연방 심사의 배경

- 지난달 말 공개 이후 정부가 개별 승인한 약 20개 파트너에만 접근이 제한되어 왔으며, 미국 프런티어 모델이 정부 관리 접근 명단 뒤에 놓인 첫 사례.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가 평가를 수행했고, 오픈AI는 기술 인력을 워싱턴에 상주시켜 질의에 대응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샘 올트먼과 직접 만나 범정부 검토 완료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었음
- 제도적 틀은 6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최고 성능 모델에 대해 공개 전 최대 30일간 정부가 평가할 수 있는 자발적 사전 심사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GPT-5.6 건은 자발적 검토를 넘어 정부 관리 접근 명단으로까지 확대된 케이스. 오픈AI는 이번에는 응했으나 이런 방식이 장기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태
- 경쟁사도 같은 체제 아래 있음. 앤스로픽의 Claude Fable 5-Mythos 5는 지난달 수출통제 준수 과정에서 제공이 중단되었다가 지난주 제한이 해제된 바 있어, 미국 프런티어 모델 접근 정책이 제한과 해제 사이를 오가는 불안정한 국면임을 보여줌

우주/로봇

알파벳(GOGL.US): 웨이모, 샌디에이고·라스베이거스·탬파·덴버 4개 도시 추가

- 웨이모가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탬파, 덴버 4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발표. 라스베이거스는 이미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개시했고 나머지 도시가 뒤를 잇는 순서. 수 주 내 알파벳 직원 대상 탑승부터 시작해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며, 4개 도시 모두 연내 일반 탑승객을 받는 것이 목표. 이번 확장으로 서비스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댈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 기존 10여 개 도시에서 14개 이상으로 늘어남
- 탬파는 기존에 공개된 2026년 확장 목표에 없던 도시로, 목표 도시를 실행하면서 명단을 오히려 늘려가는 양상. 확장 속이 선벨트에 집중되는 흐름도 뚜렷. 덴버는 한랭 기후 진출의 시험대. 눈길 주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신형 차량 Ojai가 투입될 예정으로, 적설 환경 대응력이 검증 포인트
- 지금까지의 KPI는 확장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음. 누적 자율주행 탑승 2,000만 회를 넘겼고, 미국 내 약 4,000대 차량을 운영 중이며, 2월에 알파벳 등으로부터 160억 달러를 조달한 상태. 연말까지 주간 100만 회 운행 달성이 목표이며 경영진은 이를 사업의 변곡점으로 규정함. 연내 런던 진출로 첫 해외 시장 진입도 예정

블루오리진(비상장): 창사 첫 외부 투자 유치

- 블루 오리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를 받는 100억 달러 규모 조달에 착수함. 신규 자금 제외 기준 기업가치는 1,300억 달러로 평가. 투자자 구성은 헤지펀드 코투 매니지먼트가 약 40억 달러로 주도하고, 제프 베조스 본인이 2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며, 나머지 40억 달러는 복수의 대형 기관투자자로 구성
- 이번 투자 유치는 자금 조달 구조의 전환 측면에서 의미가 큼. 베조스는 2000년 창업 이래 아마존 주식 매각 대금으로만 회사를 지탱해 왔고 누적 투자액은 약 280억 달러 규모. 올해에만 50억 달러에 가까운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 유치는 개인 자금 의존 탈피와 함께 공식 시장 가치 확보를 통한 후속 조달 기반 마련의 성격
- 투자 유치는 5월 대형 사고 직후라는 점에서도 주목됨. 뉴글렌 로켓이 4차 발사 준비 중 플로리다 발사대에서 지상 연소 시험 도중 폭발해 발사대가 손상되었고, 엔진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 손실 규모는 약 1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4월에는 고객 위성을 잘못된 궤도에 올린 사고도 있었음. 그럼에도 연말까지 뉴글렌 비행 재개라는 공격적 목표가 유지됨
-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성장 스토리는 발사 사업 너머에 있음. 1월 공개된 위성통신망 TeraWave가 기업·정부·데이터센터 고객 대상 연결 사업을 겨냥하고 있고, 궤도상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구상도 추진 중

로켓랩(RKLB.US): 우주군 Victus Haze 시연 성공

- 우주 스타트업 트루 어노머리와 로켓랩이 미 우주군을 위한 궤도상 임무 Victus Haze를 지난주 완수함. 두 회사의 위성이 궤도에서 만나 한쪽이 다른 쪽을 근접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
- 이번 시연의 직접적 사업 연결 고리는 우주군의 62억 달러 규모 Andromeda 프로그램. 기동형 정찰 임무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사업으로, 비행 실적과 입증된 능력이 수주의 결정 변수라는 점에서 이번 성공이 과제 수주 경쟁의 유리한 고지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로켓랩은 통보를 받은 지 16시간 42분 만에 우주선 Puma를 발사했는데, 통상 로켓 발사가 수개월 전에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즉응 발사 능력을 실증한 것. 궤도에서 대기하던 트루 어노머리의 Jackal은 Puma의 도착 위치를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센서로 2,000킬로미터 밖에서 표적을 탐지·식별함. 이후 기밀로 분류된 거리까지 접근해 표적 주위를 돌며 기체 각 부분을 촬영한 뒤 원래 궤도 위치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수행. 시속 약 28,000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두 우주선의 근접 기동이라는 점에서, 유인 임무를 제외하면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한 근접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임무의 배경은 궤도 정찰 수요의 구조적 확대. 미국·러시아·중국이 새로운 우주 무기를 배치하는 환경에서, 상대국 발사체가 궤도에 도착한 직후 근접 검사하는 능력이 필수가 되었으나 현재 미군의 수집 역량에는 공백이 있음. 후속 훈련은 난도를 높여 진행될 예정. Puma가 Jackal의 추적을 회피하고 역으로 자체 검사 기동을 수행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될 수 있어, 궤도상 공방 전술의 실전 검증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산업재

퓨얼셀에너지 Fit Energy와 380MW 계약 체결

- 6월 말 MCFC 연료전지 기업인 퓨얼셀에너지가 Fit Energy와 380MW 규모의 연료전지를 데이터센터 현장 발전 기저부하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 380MW 중 30MW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증금이 지급되어 올해 내 공급이 시작될 예정
-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PAFC/MCFC/SOFC/PEMFC/DMFC 등으로 구분되는데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발전에 적합한 연료전지는 고온에서 작동하고 효율이 60%를 넘는 MCFC와 SOFC로 한정
- 퓨얼셀에너지와 블룸에너지가 각각 MCFC와 SOFC 연료전지의 대표 기업
- '26년 4월 발표된 오라클 Project Jupiter(2.45GW)에서는 가스터빈을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블룸에너지 SOFC가 대체하기 시작
- 블룸에너지 입장에서는 CY27년까지의 물량 확정에 의의가 있으며 현재 제조시설에서는 연간 5GW 수준까지 출하가 가능
- MCFC는 SOFC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대용량 발전에 유리하며 작동 원리상 이산화탄소포집(CCUS)에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 다만 전해질(용융탄산염)의 특성상 출력 변화에 부드러운 대응이 SOFC 보다 어렵고 공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어 개발 흐름에서 SOFC가 차세대 발전원으로 여겨져
- 블룸에너지는 6월 30일 브룩필드와의 파트너십을 기존 50억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5배 확대
- GE버노바도 '25년 12월 개발 중인 신제품 중 하나로 SOFC 연료전지를 공개한 바 있어. 당시 타임라인은 상용화까지 최대 2년, 양산까지 최대 3년을 언급. 다만 해당 시점이 되면 가격과 규모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가스터빈이 출하되기 시작
- 퓨얼셀에너지의 MCFC는 OBBBA 연료전지 투자세액공제(ITC) 30%가 2032년까지 가능하지만 여전히 GPM이 안정되지 못해 정책 수혜가 고정비와 프로젝트 손실을 상쇄하지 못함.↳
- 퓨얼셀에너지 역시 연료전지의 특징인 빠른 납기의 강점이 있고 최근 계약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 전환 근거는 약하다는 판단

블룸에너지 스칸듐 중국 공급망 우려

- 블룸에너지 스칸듐 공급망에서 중국산 공급망에 대한 우려 부각
- 스칸듐 공급량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 블룸에너지는 이에 반박 자료를 공시
- 기존 니켈/코발트 가공 시 나오는 폐기물에서 산화스칸듐을 회수하는 공정으로 의존도를 낮춤
- 희토류는 미국에서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일본, 호주 등 연합국과 Friend Shoring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자원
- 블룸에너지 역시 캐나다, 호주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해 우려요인이 아니라 반박

800V DC 타임라인 지연 우려

- 일부 보고서에서 수율 및 공급망 관련 우려로 인해 800V DC 타임라인 지연에 대한 우려 부각
-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질 가능성 높다고 언급,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기존 타임라인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
- 타임라인 지연 우려 지속 부각되고 있으나 800V DC 전환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도기에 잘 대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합리적인 시점
- 과도기가 길어질 경우 DC 랙 앞에 설치하는 Side Power Car 의 수요가 높아져
-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BBU, CBU가 부수적으로 수요 증가 가능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직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